

뉴스 & 뉴스

조계종 교육지도자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이 주최하는 '조계종 교육지도자 회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송광사 서울 분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종단 교육계 원로스님,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 종단 각급 교육기관 조직자, 교육원 3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향후 승가교육 발전방안과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색새마을 원장 사표 수리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3월27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199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각스님의 상임이사직 및 소색새마을 원장직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이사회는 상임이사에 이사인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선임했다. 또 최금한 이사의 유고로 인한 결원에 따라 봉은사주지 무상스님(중앙승가대총동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도심포교당 주지 세미나

조계종포교연구실(실장 효승)은 3일 오후2시부터 포교원회의실에서 '포교당의 신도교육체계와 방법론'을 주제로 도심포교당 주지사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홍스님(공명 금강정사 주지)의 주제발제와 초격스님(서울방배동 광명선원 주지)과 선혜스님(서울중계동 법륜당 주지)의 사례발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나라살리기 헌혈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자비의 실천! 작은사랑 나누기, 동국인 나라살리기 헌혈' 행사를 3월25일부터 27일까지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자비의 실천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 시대에 혈장 수입으로 지출되는 연간 2천5백만달러(약 4백억원)의 외화를 절약하는 취지로, 학교당국과 교수회, 대학원 총학생회, 총학비상대책위원회,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다.

불심홍법원 8회 바라밀제

부산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3월21일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제8회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남식, 박영동, 김원수씨가 각각 홍법대상을 수상했다. 하도명화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을 널리 전하는데 밀거름이 되도록 청소년포교를 비롯한 포교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립원 법당 낙성식에 모인 해광맹인복지회 회원들은 비록 부처님 상호를 볼 수는 없지만 스님의 법으로 불법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도립원은 앞으로 점자도서실, 수련원 등을 건립해 시각장애인 복지들을 위한 공간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전용법당 '탄생'

해광맹인복지회 춘천에 '도립원' 낙성 50평 조립식 건물...수련원 건립등 추진

시각장애인 전용 법당이 교계 최초로 마련됐다. 해광맹인복지회(회장 김부봉)는 3월26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 위치한 도립원(주지 현담스님)에서 법당 낙성식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복지 전용으로 건립된 도립원 법당은 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 법당은 계단과 문턱을 대폭 줄이고 법당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해광맹인복지회는 97년 총 6천여평의 부지를 매입 도립원 시각장애인 전용법당 건립을 추진해 왔다. 89년 3월26일 청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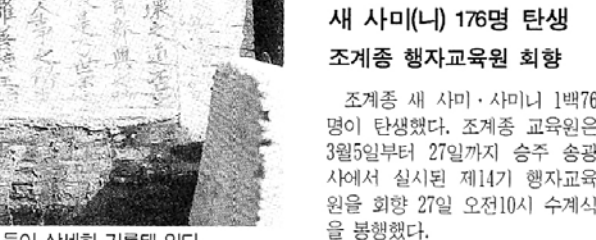
회 소속 사물놀이패의 한바탕 사물놀이도 신명나게 펼쳐졌다. 법당 낙성식을 가진 도립원은 점자도서실 수련원등 각종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근본적인 난제로 남아 있다.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전무한데다 IMF시대에 줄어든 회원들의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부봉회장은 "지금 맡고 있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이사장 및 관장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도립원에서 살고 싶다"며 "부처님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칠 도립원에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춘천=김지연 기자>

해인사 판전 지붕보수 '착수'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11억2천8백여만원의 들어 수다라전과 법보전의 기와 및 연목교체, CCTV 및 방범화재시스템 구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보수는 지난 62년 기와를 전면교체한지 35년만의 일인데다 경관과 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과 해인사의 기술지도단은 보수기간중 관람객 출입을 일시 통제하는 문제와 경관에 대한 소금물소독 등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35년만에 기와 교체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와 문화재관리국은 3월24일 해인사에서 판전대장경(국보32호)을 봉안한 판전(국보52호)보수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3월25일부터 수다라전 지붕보수에 착수했다.



△분황사 보광전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 청건연대 중건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분황사 역사 적인 상량문 발견

보광전 개축과정서...중건내역등 상세 기록

경주 분황사 보광전에서 지금 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사찰의 중건내역 등을 기록한 상량문과 불교벽화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는 3월24일 분황사 보광전을 개축공사하던 중 대들보에서 분황사의 청건연대와 중건과정, 보광전에 안치돼 있는 약사여래좌상(경북도 문화재자료 319호)의 주조 등 분황사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는 상량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된 상량문은 2개로 하나는 길이 2백80cm, 너비 25cm 대들보에 기원형식으로 써내려 갔고 다른 하나는 대들보에 홈을 파고 1장의 한지(가로 30cm, 세로 10cm)를 이용해 기록했다. 경주시는 현재 한지가 물에 젖어 문화재관리국에 의뢰, 해동작업

한 미확인 최종 통보에 따라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유가족 1백여명 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가 참석했다. 불교계 대표로는 조계종 사회복지실 일화스님이 참석, 희생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3월21일 종로구 송현클럽에서 열린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화(이하 대불) 총회에서 불거져 나온 불협화음은 불교계의 기대를 저버린 '대불'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발단은 94~97년까지의 '대불 입·출금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대불 발전기금 총 3천2백만원이 모두 소모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롯됐다. 이 기금은 95년 대불이 동문화라는 친목단체에서 사단법인 대불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회원들과 이사들이 적립했던 대불의 자립기금이다. 이 일로 95년부터 회계 등 실무를 전담해 왔던 전 사무총장이 대불의 주요 회원들에게 기금 훼손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94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기금이 훼손됐다"며 "예산확보·집행승인·결산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 감사는 △회계장부와 지출승인 절차 부재 △과도한 인건비 등이 발전기금을 훼손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금 훼손의 근본적인 이유로 자금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던 사무총장의 탓뿐 아니라 대불 이사들의 행정력 상실도 보여주고 있다. 대불이 95년 사

대구 팔공산에 불교실버타운

연꽃마을 '보살선원' 개원...50여명 입주

대구 팔공산에 노인복지자들의 수행과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이 건립됐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3월 27일 동구 덕곡동 산38-1번지에 보살선원을 개원, 삼존불 봉안 및 1백일 기도입제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노인복지와 수행의 개념을 통합한 새로운 실버타운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보살선원은 6천여평의 부지에 1차로 연건평 3백평에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의 복지센터를 완공, 50여명의 노인복지자들이 입주했다. 보살선원은 앞으로 노인단체출가, 노인1년출가, 노인평생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꾸며갈 계획이다. 각현스님은 "서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인전문수도원의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의 새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골당 웹사이트' 개설

교헌사, 사이버 성묘 추진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주지 해가스님)는 조상의 생전 모습을 담은 '남골당 웹사이트'(http://www.trend.co.kr)를 최근 개설, '사이버 성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헌사는 조상의 유골을 모시는 남골시설, 사이버 성묘와 컴퓨터를 이용한 참담시설을 갖춘

대불 입·출금 감사보고서

△과도한 인건비 등이 발전기금을 훼손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금 훼손의 근본적인 이유로 자금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던 사무총장의 탓뿐 아니라 대불 이사들의 행정력 상실도 보여주고 있다. 대불이 95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회(會)를 키워왔지만 정작 97년까지도 대불 입·출금에 대한 공식적인 결산과 감사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보고서는 바로 지도체제 결말이라는 대불의 뒷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30여년간 대불 본부는 지도력과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총회에서는 대불련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일을 계기로 대불은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출범시켰다. <회장인터뷰 4면> 70년대 학번의 회장단들. 민중불교운동에 관심을 보였던 새 인물들에게 지성불교의 몫을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Xiang Ni' (香妃) health supplement. Title: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Cause and Effect of Women's Concerns and Aromatherapy). Text describes benefits for blood circulation, stress relief, and overall health. Includes a list of symptoms and contact information: 080-200-4545.

Advertisement for 'Diet Art' (다이어트). Title: '향 다이어트' (Aroma Diet). Text promotes a diet that is easy, healthy, and effective for weight loss.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02) 755-9821.